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0주일
제34권 38호(가해) 2014.8.17

[묵상]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 <제르망 장 드로아스>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치유해줄 수 있다는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약함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 모습에서는 하느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
겸손과 낮은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그저 하느님 앞에 뻗뻗한 목과 교만함이 가득할 뿐이다.

멈춰버린 신앙!
이런 우리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참 슬퍼하실 것이다.

'신앙이란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사람,
더 깊은 믿음과 간절함과 확신이 누구보다 강한
신자 어디 없나요?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배용우 이나시오 & 이애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김옥순 소피아, 전시웅 요한, 송근섭 발렌티노 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이명자 로사, 박희성 테레사,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조정림 요셉, 김만성, 세월호 희생자들
	(생)김정혁 루이스, 이성희마리아, 김선경, 석순영 아네스, 김호인 베라멧다, 유정민 도미니카, 김형준 요한, 김방철, 정진확 알베르토 & 정은경 그레이스 & 정진세 사이몬, 김지원 임마폴라파 & 김지민 마리아, 김영숙 헬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56,1-6

화답송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
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13-15.29-32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마태오(Matthew) 15,21-28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208	208
봉헌	269	269	272
성체	352	292	287
파견	364	211	252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백성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4) 거룩하게 하시는 영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거룩함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이사 6,3), 그분의 영계에서도 당연히 거룩하시다(시편51,13; 이사63,10-11). 하느님께서는당신의거룩한영을인간에게전사하시어당신의뜻을깨닫게해주신다.

하느님께서“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지혜 9,17) 또한 거룩한 영계에서는 우리에게가르침을주어, 거것을피하게하고미련한생각을멀리하며 불의를수치스려워하게하신다(지혜 1,5). 그래서시편의저자는“당신의거룩한영을제게서거두지마소서.”(시편51,13) 하고기도한다.

새 계약이 맺어질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하느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탈출 19,5-6), 그 이후에 거듭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겪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장차 새 계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을 다시모아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시어(에제 36,26-27), 그들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였다(에제36,28).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영을 통하여 세상과 인간과 통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을 자신들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으로, 곤경과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체험하고 기대하였다.

2. 예수님과 성령

신약 성경이“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마태 16,16)로 증언하는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찬 분이시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파견을 약속하셨고, 부활 후에 그 약속을 실현하셨다.

신약의 백성은 성령에 대한 강한 체험을 하면서 구약에서보다 더욱분명하게하느님의가까우심과관하심을확신하고,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상과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현존하심을 깨닫는다.

<◆계속>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온갖 신분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회원증은 그 신분에 맞게 출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곳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기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과 선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요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에 그리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원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상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름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기꺼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마태15,23)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인간사 안에서 그리 옥덕을 것 같지 않을만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둔 어머니로서, 가난한 여인은 이것 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구박도, 무너지는 자존심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강아지 취급받는 이야기조차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뿐임을 드러냅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선인, 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사람들이 그어 놓은 선들은 그 여인 앞에 아무런 벽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을 뿐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완성은 인간적 모욕을 견디어 내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어 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그만! 더는 못 참아!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랑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멈춰지고 믿음의 길이 숲이 턱 막힐 정도로

힘겨워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내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 부수어지는 내 자존심에 대한 아픔 때문인 것은 아닐런지요.

더 이상은 부서지고 싶지않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아닌지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응답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지요. 내 처지가 어떠한데 예수님께 큰소리로 ‘소리 질러’(마태 15,22 참조)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처지에 발목잡혀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고 사랑을 멈추고 있다면, 그 이유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디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다 버리고 “주님, 저를도와주십시오.”(마태 15,25)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귀석 신부/명일동성당 주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처음엔 3킬로그램짜리가 너무 무거워
열 번도 힘들었지만
여러 날 연습한 후 열 번씩 세 번도 거뜰해졌습니다.
덤벨의 무게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고
팔 힘이 세진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라진 건 덤벨이 아니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겠지.
세상도 그렇겠지.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북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팅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 / 카슨 구역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치겠습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님의 신앙특강 안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좋은 반복과 좋지않은 반복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제로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 제목 : 반복과 신앙
- 일시 : 오늘 주일(17일) 오후 1시 성전
-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하여 신부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제공 해 주십니다.

◆ 요셉회 8월모임 및 "장수사진 촬영" 안내

- 일시 : 8월31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촬영 봉사자 : 한장환 안토니오, 김선제 바오로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당일 음식과 음료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참석 환영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모집합니다

- 성당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신앙으로 봉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학생 복사단 신입회원 모집

- 대상 : 3-4학년 주일 학교 학생
- 자격 : 1.첫 영성체를 한 주일학교학생
2.부모가 열심히한 천주교신자인 학생
3. 학생본인이 복사단에 가입하고 싶어할것

- 첫 모임 : 8월23일(토) 4:00 PM 복사단 총회
문의: 담임교사-신동윤 빈첸시오
vincentshin1971@gmail.com

◆ 제15차 국어 교사 학술대회-미주 한국학교연합회 주최

- 기간 : 8월 12일(화) ~16일(토)-5일간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10명 참가
- 장소 : L.A. 한국교육원

◆ 2014~2015년도 1차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연수

- 주제 : 학사일정 관리및 교안작성
- 기간 : 오늘주일(17일)
- 참가자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및 봉사자 전원
- 장소 : 한국학교 교사실

◆ 성마가렛 메리본당 제32회 로미타 페어

- 일정 : 9월5일(금)~7일(주일)
- 장소 : 성마가렛메리 성당
25511Eshelman Ave. Lomita
- 행사내용: 각종놀이기구와 게임 & 음식판매
- 경품권 판매 : 백삼위본당 8월24일
- 문의 : ☎(310)326-3364

◆ 제38차 남가주 여성 영어 꾸르실료 .. 본당에서 두명 참가

- 일시 : 8월 28일(목) ~31일 (주일)
- 참가자 : 정혜정 켈마 & 오보나 보나
- 장소 : 포모나 Cursillo house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문의 : kccmsc@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7일 : P.V. 2/4반(북어국 + 부추겉절이 \$0)
- 8월24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 욱	김대우	김상규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재영	김정희	김종문	노혜숙	박광자	박인식
	박정희	배재일	석순영	송종두	신경훈	안재만
	윤석구	윤희동	이경수	이영석	이용무	이은록
	이인두	이일길	이재철	이효새	장영우	장영진
	전정자	정인욱	정정현	정훈모	최기남	최미열
	최지영	홍인표				
합계 : \$ 4,110						
주일미사 헌금 : \$2,86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모 안토니오신부님의 사제서품
55주 년 및 팔순 감사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3일(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성 그레고리 성당
900S. Bronson Ave. L.A., CA 90019
- 연락처 : 이 미카엘 ☎(213)700-1788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 강의

- 주제 :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본 예수생애"
- 강사 : 송봉호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 판구)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회관
- 일시 : 8월 22일(금), 23일(토) 24일(주일)
- 수강료 : \$50(1일수강료 \$20)
-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면형강학회 (순교자 영성)

- 선조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찾아 성숙한 신앙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기도과정
- 첫 강학일 :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내 순교자영성센터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제18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전

- 리셉션 :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 전시회 기간 : 9월 6일~19일
- 장소 :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
- 수익금의 일부는 작은예수회에 성금합니다
- 문의 : ☎(213)365-8285

◆ 본당 교우들에게 알립니다.

교적에 기재된 주소나 전화번호등이 최근 바뀐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재 메히달다 991-4838 8/8(금) 오후 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701-6343 8/9(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15(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인식 토마스 953-9597 8/1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정남형 알베르토 991-8556 8/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김현숙 벨라벳다 617-1132 8/9(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8/2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5(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8/8 (금) 오후 7시 성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황안젤라/임젤마 404-1607 8/1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10(주일)오후 1시 하버시터파크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중선 리비나 213-700-6983	고규재 체칠리아 531-0123 8/8(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8/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8/9(토) 오전 11시 De Portola 팍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2(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 1시
------	-------

하느님은 내 편 아니다, 내가 하느님 편이어야지

호전적인 나라를 이웃하고, 무자비한 복해를 이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배려한 교황님의 방한과 8.15 광복기념일, 겹경사의 8월입니다. 이 짧은 삼복염천에 교황님의 방한이 우리 온 국민에게 제2의 광복 기회가 되도록기도 드리려는데, 손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몇 년간 못 본 사이에 아기 티를 벗고 어린이로 자란 손자 손녀가 티격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다투다가 무슨 말끝인지 “할머니가 축구 보라고 했어.”라는 손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닌 내 편이야.”라는 손녀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어서 “아양~” 울음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갔더니 “할머니이~! 내 편이지?” 하고 울며 달려옵니다. “그래그래, 네 편이지. 네가 잘못할 때만 빼고는 언제나 네 편이지.”라며 이렇게 두 아이를 달랬던 일입니다. ‘그래, 하느님도 내가 잘못할 때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니시지. 오히려 내가 늘 하느님 편이어야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감졌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분명 내 입에서 나왔던 내 말인데,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늘 내 편인 줄 믿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느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니시랍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내 편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옳으시니까요.

운동경기를 구경하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어느 팀을 편드실지 참 곤란하시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늘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팀을 편드시지, 술수를 쓰거나 이기게 해달라고 생떼 쓰는 팀을 편들지 않으실거라고 알고 있다면, 하느님은 피로우실 리 전혀 없을 것 입니다. 약자라서 불의한 이웃 나라에 36년이나 착취당했던 우리나라를 교황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약자였기에 선교사없이 자란 가톨릭이었고, 개신교의 첫선교사들도 이미 한글로 번역된 「마가(마르코)복음서」를 들고 왔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이기에 교황님의 이번 방한은, 가톨릭과 개신교 구별 없이 모두에게 특별 은총이 된다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고 들어서 더 행복합니다.

124위 순교 선조(先祖)의 시복만이 아니라,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도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말입니다. 그 바쁘신일정에도 무의탁 행려인들의 집 꽃동네 방문은 프란치스코 스타일 그대로 아닌가요. 항상 정의롭고 약자 편이신교황님의 행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온 국민에게 잊힐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편애하셨다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최근 묵상 중에문득 바뀌었습니다. 이들 세 제자야말로 강도 높은 훈련이 가장 필요했던 학습부진아들이었기에, 주님은 믿음의 약한 제자들을 더 훈련

하신 것이지 편애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교황님도 당신의 위로와 격려가 가장 절실한 꽃동네 식구들을 더 배려하신 것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자꾸만 벌어 내는 취약자들을 위한 교황님의 행보를 묵상하다가 얻은 놀라운 수확입니다.

◆ 유안진 글라라 /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연극처럼 실감나게 ‘독서’ 하면 안 되나요? <전례 상식>

☞ 「전례현장」 7항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례 중 성경 봉독은 ‘회중을 향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는 독서자가 교우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배치합니다. 독서자는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억양을 조심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성경을 봉독해야 합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자 자신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확신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봉독은 바로하느님의 ‘말씀’과 ‘사업’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증거’로써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싫고, 무기력함 때문에 기도조차 하기 힘이 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은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은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내가 계획하고 희망하는 대로 삶이 흘러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 장기 그 어느 것도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슬프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청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힘을 청합니다.

믿음은 나를 보다 완전하고 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느끼게 해 줍니다. 형제님에게 지금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